

외식조리 대학생의 음주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관계 연구 -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교생활 연관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오 석 태[¶]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Awareness of Culinary Student Drinking Behavior and School Life Satisfaction/Stress

Suk-Tae Oh[¶]

Dept. of Culinary Art, Wooso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ality between satisfaction /stress with school life and drinking-related behaviors of students majoring in the Dept. of Culinary Arts. The majors taught in college will connect to the job in the future directly. Therefore, in this regard,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great importance for Dept. Culinary Arts student training. Results indicated that a positive perception of drinking partially influenced the levels at $\langle \beta = -.219, p < 0.01 \rangle$ a partial impact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tress. Negative perceptions also appeared to influence $\langle \beta = .445, p < 0.01 \rangle$ and $\langle \beta = .213, p < 0.01 \rangle$ levels of satisfaction and stress. Therefore, drinking behavior appears to affect the college life experience stress. Schools will have to incorporate this as part of the curriculum to correct the drinking behavior of students.

Key words: culinary arts, drinking behavior,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 school life, satisfaction

I. 서 론

대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논의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학생의 음주가 음주자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동료는 물론이고, 이 시기에 형성된 음주 습관이 사회로 연계된다는 것에 더 심각성이 있다

는 것이다(Ha YJ 2011; Park JS 2001; Vik, P. et al 2000). 음주는 그 자신에게는 업무능력 저하, 사고확률 증가, 기억 상실, 급·만성질환 유발을 비롯하여 각종 사고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각종 폭력이나 소란,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범법행위 증가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의 가정파괴나 직장에 인력손실 등 갖가지 문

[¶]: 오석태, stoh@wsu.ac.kr,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

제점을 유발하게 된다(McNally AM & Palfai TP 2001; Buettner CK · Andrews DW & Glassman M 2009).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술 문화의 저변에는 술을 권하는 것이 미덕이며, 술은 서로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고위험 음주율이 전체적으로 15.6%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남자가 22.5%이며, 여자가 7.2%로서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남자는 23.2%에서 미약하나마 0.7% 감소하였지만 여자는 4.6%에서 2.6% 증가함으로써 약 57% 증가하였다(통계청 2013). 우리나라 15세 이상 1인당 술 소비량은 연간 9.16리터이며,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은 소주와 같은 증류주로서, 이를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증류주가 6.07리터, 맥주 2.01리터, 와인 등 기타 주류가 1.04리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11월에 발표한 OECD Health at a Glance 보고서에 의하면 회원국 34개국 중 우리나라는 22위로 나타났다(파이낸셜뉴스 2014).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음주실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을 때 Ha YJ(2011)의 연구에서는 한달에 1~2회의 술을 마시고, 소주가 48.7%이며, 최초 음주연령은 고등학교 시기인 17.51세로 밝혀졌다. Kim KH외(2011)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41%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음주를 시작하였고, 한 달에 소주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술을 마신 후에 필름이 끊어지는 현상 즉 블랙아웃(Black-out)을 경험한 학생들이 1년에 1~2회로 50.3% 즉, 2명에 1명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대학에서 술을 접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1학년 신입생 환영회와 선배와 친구들의 과도한 술을 권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대학생활에서의 술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대학생들의 음주는 그 시기에 있어서 청소년과 성인의 중간 단계로서 사회를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Kim KK 등 2013; Kim

KH 등 2011; You CY 등 2010; Jung SH 2008; Jung SK 2006). 이때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취업의 압력과 사회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가 나타났을 때,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존세대보다 예민하고 날카롭게 받아들이게 된다(Kim DS 2013; Kim JI 등 2007). 이 때 정서적인 변화와 스트레스는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게 된다.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조리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음주문화와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일반 인문사회적 학문 학생들과는 달리 실용학문으로서 이론과 실습의 비율이 타 전공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또한, 실습은 주로 주방(kitchen)에서 이루어지며, 주방은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기 위한 칼과 각종 위험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며, 가스와 전기, 뜨거운 물과 기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조리전공학과에 설치된 시설은 이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에서 경험해야 할 환경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현장과 흡사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음주 후 또는 음주 중 수업을 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습관은 곧 직업과 연결되어 미래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Rue M 2010; Andersson C · Johnsson K O · Berglund M & Ojehagen A 2007). 이는 대학에서의 음주 습관이 장래에 심각한 알코올 관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Vik P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에서의 음주 문제는 직장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학교에서의 음주 습관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두고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음주 빈도와 습관이 학교생활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서 전공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인의 조리관련 재능 유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조리실습을 하는 동안 육체적인 스트레스, 조리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위험적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6개 항목을 설정하여 외식조리전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학교생활과 만족도, 그리고 스트레스에 연관성을 알아보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주행위

음주는 어떠한 특정 조직과 문화 속에서 독특한 행위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어떠한 환경이 음주행위를 결정하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특정 조직 내에 존재하는 음주관련 환경이 음주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Kim DS 2013; Jung SK 2006). 전통적으로는 결혼, 장례와 같은 관혼상제와 같은 행사에서의 음주행위가 있고 조직의 상사나 동료, 이성 등 대인관계를 형성하려는 사교주의적 음주행위가 있다(Ha YJ 2011). 음주행위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변수 조작의 난해로 인해 측정이 매우 어려웠지만, Vogel-Sprott(1974)가 음주행위 요인으로서 빈도를 제시하면서 음주행위에 일정기간 동안의 음주 빈도와 음주량을 포함하게 되었다. Kim YS(2003)는 “음주행위에서 술의 양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잔의 개념을 도입되어야 하지만, 술의 종류와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음주량과 음주의 빈도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들은 대부분 Knupper G(1966)의 음주행위 4가지 유형에 바탕을 두

고 있다. 이 유형에는 첫째,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모두 높은 유형, 둘째, 음주량은 많지만, 음주빈도는 낮은 유형, 셋째, 음주량은 적지만, 음주빈도는 높은 유형, 넷째, 음주량도 적고, 음주빈도 역시 낮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와 관련된 연구로서는 Ha YJ(2011)의 여대생 음주군의 문제점과 Choi MR, Lee IH (2003)의 술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비롯하여 Elliot M · Ainsworth K (2012), Kim KK 등(2012), Kim KH 등(2011), Oh HS(2011), Mc Nally AM · Palfai TP(2001)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nupper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여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조합한 Kim YS(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음주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1)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음주의 동기는 다양하지만,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Wechsler H et al 2001). 김유승(2006)은 “직장 내 음주문화 현황과 올바른 조직발전을 위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직장 내 음주문화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업무의 연장선으로서 회식과 접대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 직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비공식적 회식을 사례로 들었으며, 여기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로는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사교 및 영업활동의 강화로 수익성 창출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사회적 문화 차원에서도 술을 권하는 것이 친근감을 표시하고, 음주를 통해 대인관계를 좋게 함으로써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사회적으로 친밀감을 높여 주는 행동으로 간주하여 매우 관대하고 호의적인 것이 사실이다(Kang DS · Jang KH 2011; Oh HS 2011).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주의 긍정적인 인식을 술을 마실 때 즐거움과 술을 통해서 친구 또는 선후배 간 친밀도를 높이는 것, 술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 술이 사회적인 성

공에 도움을 주는 등의 5가지 질문 항목을 설정하여 이를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설정하였다.

2) 음주의 부정적 인식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반하여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절제되지 않는 과도한 음주가 건강악화는 물론이고, 사고를 유발하고, 각종 폭력과 학업에도 영향을 주어 사회생활에 각종 악영향을 준다(Elliott & Ainsworth 2012). Kim JI 등(2007)은 대학생들은 청소년 시기가 끝나고 성인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므로, 사춘기적 기저가 존재하여 정신적 갈등을 비롯하여 성적 충동과 정서적 불안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학생활에서의 음주행위에 쉽게 몰들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습관으로 굳어져서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의 부정적 인식을 건강에 대한 근심, 술에 대한 중독, 술을 마신 후 공격적인 행위, 술을 통한 사회적인 악영향 등 6개 항목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2.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滿足)”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구에 대한 매우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를 수치화 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만족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에 모자람이 없이 흐뭇함”이라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감정적 차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족이란 ‘어떠한 대상에 대해 자신의 기준적인 목표와 욕구를 설정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행위를 한 후에 그 결과가 기준에 대하여 갖는 사람들의 감정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Park SJ 2013; Jung SH 2008). 사람들이 갖는 만족감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은 기업의 고객관리에 초점을 두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고객만족은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고, 고객만족도가 높아

지면서 주위에 제품을 전파하는 구전행위와 함께 더 높은 가격도 기꺼이 지불하게 되는 고객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Kim BH 등 2011; Kim JM 2009; Kang SI 2000).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성별은 물론이고 연령, 출신, 인종, 학력과 수입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 및 사회적 관계요소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복잡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 대상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명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래 계획과 자원투입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생활 만족도는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대학에서의 수업을 비롯한 각종 활동들이 기대와 불일치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Lee JU 2015; Kim SS 2011; Jang JK 2010). 이를 크게 나누면 수업에 대한 부분과 수업 외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 JU(2015), Kim SS(2011), Jang JK (2010)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하여 외식조리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 지역 조리과 대학생 2학년 이상 수강을 한 학생들에게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0부를 배포하였다. 2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대학생활이 짧은 1학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조작한 “학교생활”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이다. 설문은 표본 추출들(sampling frame)없이 랜덤방식으로 배포하고, 이중 수거가 되지 않은 것과 불성실하게 응답되어 통계에 사용할 수 없는 응답지를 제외한 150부

를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하나인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에 의해 표본을 구성하였다. 1학년들은 학교생활 적응단계로 인식하여 대학의 음주문화에 대해 정확하게 설문에 응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부분은 조리 관련 대학생들의 음주행위 중 음주 빈도와 습관이 학교생활과의 연관성이며, 이것이 학교 생활만족도,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 가설로 “음주빈도 및 습관은 학교생활 연관성, 학교생활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음주습관(음주주기 및 과음빈도)에 따라 음주로 인한 학교생활 연관성, 음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학교생활 연관성,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학교생활 연관성,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 분석은 SPSS 20.0(for Windows, NY, IBM Corporation)으로 구현하였으며, 첫째,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상정된 수업만족도,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음주경험과 학교생활과의 연관성, 학교생활 만족도 및 스트레스의 문항들에 대해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내적 일관성 측도로써 크론바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적용하였다. 내적 일관성

이 입증된 요인들에 대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산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상정된 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분산분석(ANOVA)을 적용하여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에 대해 상관계수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간의 선형적(linear) 강도를 의미하는데,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가설 검증을 위해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요인을 독립변수로, 학교생활 연관성을 매개변수로, 학교생활 만족도 및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정의하여,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이 학교생활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학교생활 연관성의 매개효과(media-
ted effect)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표본에 대한 현황

1) 배경변수의 표분현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표본 구성의 결과이다. 표본에 성별은 남자가 82명(54.7%), 여자가 68명(45.3%)을 차지했으며, 군필이 76명(50.7%)으로 미필 74명(49.3%)보다 많았고, 학년은 3학년 116명(77.4%), 2학년 20명(13.3%), 4학년 14명(9.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경우, 경기도와 강원도가 각각 22명(14.7%)으로 같았으며, 서울과 충남은 각각 14명(9.3%), 경남과 대전은 각각 12명(8.0%), 전남과 대구는 각각 10명(6.7%)으로 같았고, 충북은 8명(5.3%), 전북은 6명(4.0%), 경북, 부산, 울산, 인천이 각각 4명(2.7%)으로 같았고, 제주도와 광주 각각 2명(1.3%)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형태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이 94명(62.6%)으로

〈Table 1〉 Status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50)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82	54.7
	Female	68	45.3
Military service	No	74	49.3
	Yes	76	50.7
School year	Sophomore	20	13.3
	Junior	116	77.4
	Senior	14	9.3
Type of high school	Culinary high school	34	22.7
	Academic high school	94	62.6
	Vocational high school	18	12.0
	Other	4	2.7
Age	20~24	126	84.0
	25~29	22	14.7
	Older than 35	2	1.3

가장 많았으며, 조리 관련 고등학교 졸업은 34명(22.7%),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18명(12.0%), 기타 4명(2.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4세 126명(84.0%), 25~29세 22명(14.7%), 35세 이상이 2명(1.3%) 순으로 나타났다.

2) 음주습관 및 빈도에 대한 표본현황

〈Table 2〉는 음주습관 및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술 유형으로는 맥주가 102명(68.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주 82명(54.7%), 막걸리와 와인이 각각 28명(18.7%), 양주 16명(10.7%), 기타 4명(2.7%)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주기는 월 2~4회 72명(48.0%)으로 가장 많았고, 주 2~3회 34명(22.7%), 월1회 미만 24명(16.0%), 없음 10명(6.7%), 주 4회 이상 8명(5.3%) 순으로 나타났다. 과음빈도는 가끔이 70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거의 없음 44명(29.3%), 자주 20명(13.3%), 없음 16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2. 요인에 내적 일관성 검증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측정된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이다. 요인점수(factor score)는 구성된 문항의 합계점수 또는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뢰도 계수로는 Cronbach의 알파계수를 활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요인이 0.8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요인점수(factor score)는 구성된 문항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요인은 총 5개의 요인점수를 산출한 다음 요인의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을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 적용된 기술통계량들은 위치측도(local measurement)인 평균(mean), 퍼짐의 측도(dispersion measurement)인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분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3.50점($SD=0.553$)으로 나타났고,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3.69점($SD=0.577$),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

<Table 2> Status for drinking habit and frequency (n=150)

Variable	Category	n	%
Types of alcohol (multiple response)	Soju	82	54.7
	Beer	102	68.0
	Makguly	28	18.7
	Hard liquid	16	10.7
	Wine	28	18.7
	Others	4	2.7
Drinking frequency	Over 4 times a week	8	5.3
	2~3 times a week	34	22.7
	2~4 times a month	72	48.0
	Under 1 time a month	24	16.0
	Do not drink	10	6.7
	No answer	2	1.3
Frequency of heavy drinking	Often	20	13.3
	Sometimes	70	46.7
	Almost never	44	29.3
	Never	16	10.7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of factors

Factor	# of questionnaire	Cronbach's α
Class satisfaction	6	.839
Positive perceptions of drinking	5	.829
Negative perceptions of drinking	7	.817
Relation with drinking experience and school life	8	.935
Relation with school satisfaction and stress	6	.569

3.16점($SD=0.718$), 음주경험과 학교생활과의 연관성 2.44점($SD=0.863$), 학교생활 만족도 및 스트레스 3.31점($SD=0.502$)으로 나타났다.

3. 요인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상정된 수업만족도,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음주경험과 학교생활과의 연관성, 학교생활만족도 및 스트레스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사전에 규명하고, 요인간의 선형적 관련성과 독립성을 진단하기 위함이었다.

<Table 5>는 본 연구에서 상정된 요인들의 상관분석 결과이다.

수업만족도는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r=.214, p<0.01$)과 낮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r=-.353, p<0.01$), 음주경험과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factors

Factor	M	SD	Skewness	Kurtosis
Class satisfaction	3.50	0.553	.157	.072
Positive perceptions of drinking	3.69	0.577	.190	-.347
Negative perceptions of drinking	3.16	0.718	-.411	.185
Relation with drinking experience and school life	2.44	0.863	-.170	-1.073
Relation with school satisfaction /stress	3.31	0.502	.666	1.083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actors

Factors	1	2	3	4	5
Class satisfaction	1				
Positive perceptions of drinking	.214**	1			
Negative perceptions of drinking	-.353**	-.322**	1		
Relation with drinking experience and school life	-.197*	-.219**	.445**	1	
Relation with school life satisfaction/stress	.185*	.123	.213**	-.084	1
M	3.50	3.69	3.16	2.44	3.31
MD	0.553	0.577	0.718	0.863	0.502

1=class satisfaction, 2=positive perceptions of drinking, 3=negative perceptions of drinking, 4=relation with drinking experience and school life, 5=relation with school life satisfaction/stress

* $p < 0.05$, ** $p < 0.01$.

학교생활과의 연관성($r = -.197, p < 0.05$)과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부(-)의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학교생활만족도 및 스트레스($r = .185, p < 0.05$)와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r = -.322, p < 0.01$), 음주경험과 학교생활과의 연관성($r = -.219, p < 0.01$)과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부(-)의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음주경험과 학교생활과의 연관성($r = .445, p < 0.01$)과 약간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 및 스트레스($r = .213, p < 0.01$)와는 낮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음주습관(음주주기 및 과음빈도)에 따른 학교생활 연관성, 음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

‘가설 1. 음주습관(음주주기 및 과음빈도)에 따라 음주로 인한 학교생활 연관성, 음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음주주기와 과음빈도에 따라 상정된 요인들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 방법으로는 Duncan 기법을 적용하였다.

1) 음주주기에 따른 요인에 대한 차이

〈Table 6〉은 음주주기에 따라 학교생활 연관

<Table 6> ANOVA result by drinking cycle

Factor	Drinking frequency	<i>n</i>	<i>M</i>	<i>SD</i>	<i>F</i>	<i>p</i>
(1)	Over 4 times a week	8	3.29	0.318	2.150	.078
	2~3 times a week	34	3.52	0.499		
	2~4 times a month	72	3.61	0.579		
	Under 1 time a month	24	3.32	0.458		
	Do not drink	10	3.27	0.767		
(2)	Over 4 times a week	8	3.50 ^{ab}	0.385	5.911**	.000
	2~3 times a week	34	4.02 ^a	0.599		
	2~4 times a month	72	3.65 ^{ab}	0.529		
	Under 1 time a month	24	3.35 ^b	0.494		
	Do not drink	10	3.64 ^{ab}	0.645		
(3)	Over 4 times a week	8	3.21	0.397	1.782	.136
	2~3 times a week	34	2.89	0.697		
	2~4 times a month	72	3.19	0.697		
	Under 1 time a month	24	3.36	0.621		
	Do not drink	10	3.29	1.186		
(4)	Over 4 times a week	8	3.16 ^a	0.371	3.588**	.008
	2~3 times a week	34	2.67 ^{ab}	0.700		
	2~4 times a month	72	2.23 ^b	0.838		
	Under 1 time a month	24	2.55 ^{ab}	0.990		
	Do not drink	10	2.20 ^b	1.088		
(5)	Over 4 times a week	8	3.10	0.355	0.384	.820
	2~3 times a week	34	3.32	0.566		
	2~4 times a month	72	3.30	0.510		
	Under 1 time a month	24	3.35	0.508		
	Do not drink	10	3.32	0.286		

(1)=class satisfaction, (2)=positive perceptions of drinking, (3)=negative perceptions of drinking, (4)=relation with drinking experience and school life, (5)=relation with school satisfaction/stress

* $p < 0.05$, ** $p < 0.01$.

성, 음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이다. 음주주기에 따라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요인과 음주경험과 학교생활과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경우, 주 2~3회($M=4.02$, $SD=0.599$) > 월 2~4회($M=3.65$, $SD=0.529$) > 없음($M=3.64$, $SD=0.645$) > 주 4회 이상($M=3.50$, $SD=0.385$) > 월 1회 미만($M=3.35$, SD

=0.49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911, p<0.01$). 음주경험과 학교생활과의 연관성은 주 4회 이상($M=3.16, SD=0.371$) > 주 2~3회($M=2.67, SD=0.700$) > 월 1회 미만($M=2.55, SD=0.990$) > 월 2~4회($M=2.23, SD=0.838$) > 없음($M=2.20, SD=1.0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588, p<0.01$). 이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음주주기의 경우 ‘음주로 인한 학교생활 연관성, 음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학교생활만족도’는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2) 과음빈도에 따른 요인에 대한 차이

<Table 7>은 과음빈도에 따라 학교생활 연관성, 음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이다. 그 결과, 수업만족도의 경우, 거의 없음($M=3.59, SD=0.624$) > 가끔($M=3.54, SD=0.512$) > 없음($M=3.52, SD=0.567$) > 자주($M=3.13, SD=0.3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623, p<0.05$).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경우, 자주($M=3.49, SD=0.383$) > 가끔($M=3.19, SD=0.637$) > 거의 없음($M=3.08, SD=0.779$) > 없음($M=2.84, SD=1.029$)의 순으로 나

<Table 7> ANOVA result by heavy drinking frequency

Factor	Heavy drinking frequency	n	M	SD	F	p
Class satisfaction	Often	20	3.13 ^b	0.381	3.623*	.015
	Sometimes	70	3.54 ^a	0.512		
	Almost never	44	3.59 ^a	0.624		
	Never	16	3.52 ^a	0.567		
Positive perceptions of drinking	Often	20	3.44	0.398	1.525	.211
	Sometimes	70	3.72	0.556		
	Almost never	44	3.70	0.600		
	Never	16	3.80	0.745		
Negative perceptions of drinking	Often	20	3.49 ^a	0.383	2.766*	.044
	Sometimes	70	3.19 ^{ab}	0.637		
	Almost never	44	3.08 ^{ab}	0.779		
	Never	16	2.84 ^b	1.029		
Relation with drinking experience and school life	Often	20	3.19 ^a	0.542	10.022**	.000
	Sometimes	70	2.51 ^{ab}	0.809		
	Almost never	44	2.14 ^{ab}	0.798		
	Never	16	1.98 ^b	0.961		
Relation with school satisfaction/stress	Often	20	3.12	0.487	2.062	.108
	Sometimes	70	3.35	0.550		
	Almost never	44	3.39	0.486		
	Never	16	3.15	0.171		

* $p<0.05$, ** $p<0.01$.

타났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766, p<0.05$). 음주경험과 학교생활과의 연관성의 경우, 자주($M=3.19, SD=0.542$) > 가끔($M=2.51, SD=0.809$) > 거의 없음($M=2.14, SD=0.798$) > 없음($M=1.98, SD=0.9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022, p<0.05$). 과음빈도의 경우에서도 ‘음주로 인한 학교생활 연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강한 설득력을 유지함으로써 “가설 1. 음주습관(음주주기 및 과음빈도)에 따라 음주로 인한 학교생활 연관성, 음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5. 음주에 대한 인식이 학교생활 연관성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음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이 학교생활 연관성을 매개로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문제에 대해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이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에 학교생활 연관성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인 3단계 방법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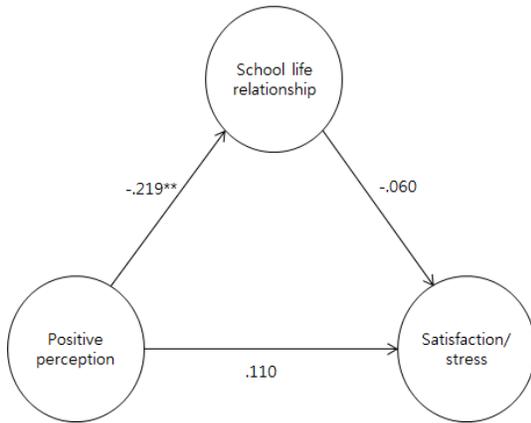
1)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학교생활 연관성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학교생활 연관성,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긍정적 인식이 매개변수인 학교생활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Step 1에서 긍정적 인식($\beta=-.219, p<0.01$)이 학교생활 연관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긍정적 인식이 종속변수인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Step 2를 살펴보면, 긍정적 인식($\beta=0.123, p>0.05$)이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Step 3에서는 매개변수인 학교생활 연관성($\beta=-0.060, p>0.05$) 또한,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학교생활 연관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

<Table 8> Influence on school life satisfaction/stress of the positive perception and relationship for drinking (parameter by school life relationship)

	Step 1			Step 2			Step 3		
	Relationship (dependent)			Satisfaction/stress (dependent)			Satisfaction/stress (dependent)		
	B	SE	β	B	SE	β	B	SE	β
Constant	3.643	.447		2.914	.264		3.041	.319	
Positive perception	-.327	.120	-.219**	.107	.071	.123	.096	.073	.110
Relationship							-.035	.049	-.060
R^2		.048			.015			.019	
F		7.449**			2.287			1.395	

* $p<0.05$, ** $p<0.01$.



〈Fig. 1〉 Testing hypothesis of the influence of school life correlation on satisfaction/ stress.

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 긍정적 인식이 매개변수인 학교생활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Step 1에서 긍정적 인식($\beta = -.219, p < .01$)이 학교생활 연관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인식이 종속변수인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Step 2를 살펴보면, 긍정적 인식($\beta = 0.123, p > 0.05$)이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Step 3에서는 매개변수인 학교생활 연관성($\beta = -0.060, p > .05$) 또한,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 학교생활 연관성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Fig. 1〉을 살펴보면,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 연관성이 낮아질수록, 만족도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가설 2.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학교생활 연관성,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3.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학교생활 연관성,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학교생활 연관성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인 3단계 방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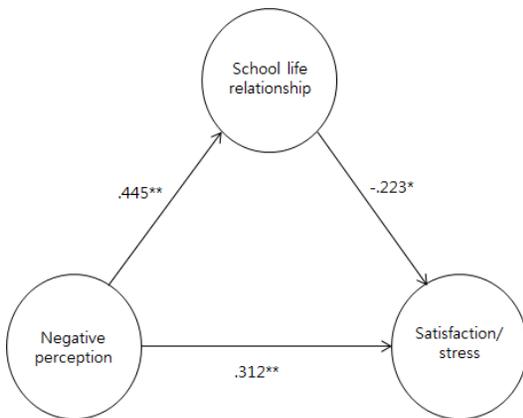
〈Table 9〉 Influence on school life satisfaction/stress of the negative perception for drinking(parameter by school life relationship)

	Step 1			Step 2			Step 3		
	Correlation (dependent)			Satisfaction /stress(dependent)			Satisfaction /stress(dependent)		
	B	SE	β	B	SE	β	B	SE	β
Constant	.747	.286		2.839	.182		2.936	.183	
Negative perception	.535	.088	.445**	.149	.056	.213**	.218	.062	.312**
Relationship							-.130	.051	-.223*
R^2	.198			.045			.085		
F	36.620**			7.030**			6.847**		

* $p < 0.05$, ** $p < 0.01$.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 부정적 인식이 매개변수인 학교생활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Step 1에서 부정적 인식($\beta=.445, p<0.01$)이 학교생활 연관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 인식이 종속변수인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Step 2를 살펴보면, 부정적 인식($\beta=.213, p<0.01$)이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Step 3에서는 매개변수인 학교생활 연관성($\beta=-.223, p<0.05$) 또한,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매개변수 학교생활 연관성은 부정적 인식이 종속변수인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mediation)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 <Fig. 2>은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 연관성이 낮아질수록, 만족도 및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가설 3.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학교생활 연관성,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채



<Fig. 2> Testing hypothesis of the influence school of school life correlation on satisfaction/stress.

택되었다.

V. 결론 및 시사점

음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이번 연구와 같이 조리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한 연구는 최초로 시도한 사례이며, 음주와 학교생활, 스트레스와의 연관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지도 방향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려는 본 연구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활 중에 음주습관과 행위는 곧바로 사회생활로 이어진다는 데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조리과 같은 특수 직업분야에서 음주습관은 향후 경력관리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가설 1. 음주습관(음주주기 및 과음빈도)에 따라 음주로 인한 학교생활 연관성, 음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학교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음주습관(음주주기 및 과음빈도)과 관계없이 음주 경험과 학교생활의 연관성에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연관성이 있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주의 긍정요인이든 부정요인, 특히 과음과 같은 음주 경험은 학교생활에 있어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교내 음주습관에 대한 지도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설 2.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학교생활 연관성,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서 나타난 결과를 고찰해 보면 긍정적인 인식은 학교생활 연관성과는 $\beta=-.219, p<0.01$ 로 (-)의 관계가 있지만 만족도와 스트레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추론하여 보면 학생들은 막연하게 음주가 학교생활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결과는 가져오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3. 음

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학교생활 연관성,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고찰로서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통계수준 $\beta=.445$, $p<0.01$ 에서 (+)의 영향을 미치며, 역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서도 $\beta=.213$, $p<0.01$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학교생활 연관성이 낮아질수록 만족도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 학과 또는 대학 차원에서의 음주에 대한 교육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음주 습관과 빈도를 볼 때 일주일에 2~3회 정도 음주를 하는 학생들이 22.7%이며, 주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학생도 5.3%나 되어 10명 중 3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과음(46.7%)에 노출되어 있음은 술이 대학생활에 매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음주빈도나 습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남녀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음주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음주는 남녀 모두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선행연구 대부분이 전체 대학생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향후 전공과 연계된 직업의 특성과 대학생활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교생활은 전공에 따라서 곧 사회생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범위를 압축하여 조리전공, 즉 매우 구체적인 범위 내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학교생활 만족도 및 스트레스와의 연관관계를 규명했으며, 이는 향후 직군 음주 연구를 할 때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후속적인 연구가 뒤따라서 전국적인 샘플링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연구가 단편적인 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 전공 분야에서 나타나는 사회활동에 대한 중단연

구를 통해서 성장과정과 경력관리와 연계한 대학 음주 영향에 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조리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조리사들과 본 연구를 비교하게 되면 비로소 한계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현장 조리사들의 음주 행위 및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직업 또는 조직생활에 대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글 초록

본 연구 외식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음주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학교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관계 연구이다. 대학생활 중에 음주습관과 행위는 곧바로 사회생활로 이어진다는 데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조리과 같은 특수 직업분야에서 음주습관은 향후 경력관리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 모두 학교생활 만족도 및 스트레스와 매개효과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학교생활 연관성과 $\beta=-.219$, $p<0.01$ 로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통계수준 $\beta=.445$, $p<0.01$ 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역시 만족도와 스트레스에서도 $\beta=.213$, $p<0.01$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음주 빈도나 습관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음주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음주는 남녀 모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대학전공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였지만, 졸업 후 직업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주 행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지속적 연구인 중단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외식조리학과, 음주행위,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

Journal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2
(2):182-189.

참고문헌

- 김유승 (2006). 직장 내 음주문화 현황과 올바른 조직발전을 위한 연구. 진흥기업(주) 주택사업팀 연구논문, 1-24. 서울.
- 통계청 고위험 음주율 (2013).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
- 파이낸셜뉴스 (2014). “1인당 술 연간 소비량 9.16 리터, 소주가 1위”, 6월 19일.
- Andersson C, Johnsson KO, Berglund M, Ojehagen A (2007). Alcohol involvement in Swedish university freshmen related to gender, age, serious relationship and family history of alcohol problems. *Alcohol & Alcoholism* 42: 448-455.
- Buettner CK, Andrews DW, Glassman M (2009). Development of a student engagement approach to alcohol prevention: The pragmatics project.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8(1): 33-37.
- Choi MR, Lee IH (2003). The moderation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2): 363-383.
- Elliott M, Ainsworth K (2012). Predicting university undergraduates' binge-drinking behavior: A comparative test of the one-and two-component theories of planned behavior. *Addictive Behaviors* 37:92-101.
- Han ES (2008). The research on the college-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MS thesis, Suwon university 12-55, Suwon.
- Ha YJ (2011). Drinking problems,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2 (2):182-189.
- Jang JK (2010). A study on the perceived degree of school life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talent and aptitude development program in junior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MS thesis, Gachon university 3-80, Sunnam.
- Jung SK (2006). The influence of Korean drinking culture and perceived attitude toward alcohol on risky drink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7(2):1-16.
- Jung SH (2008). A study on satisfaction with accounting classes at commercial high schools. MS thesis, Dankuk University 2-27, Seoul.
- Kang DS, Jang KH (2011). Gender difference in the effect of sympathy and epathy with female drinking in TV drama on drinking intentio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2(2):349-378.
- Kang SI (2000). A study on customer satisfactions toward hotel restaurants.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6(2):135-155.
- Kim BH, Sin MH, Kang GO(2011).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food styling for cooks in a Deluxe hotel.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7(3):76-88.
- Kim DS (2013) A study on antecedents of employee drinking behavior and its effects on work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3-56, Kyungsan.
- Kim KH, Kim YH, Rho SK, Kim JH (2011). Drinking cultur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1):4932-4939.
- Kim JI, Kim JS, Kim KH, Kim JS (2007). Influences of level of alcohol consumption and

- motives for drinking on drinking permissive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4(3): 382-390.
- Kim JM (2009). Study for selective attribute of customer satisfaction in hotel restaurant and family restaurant : In the seoul area. MS thesis, Chungun University 11-67, Hongsung.
- Kim KK, Jea GJ, Lee KI, Park JE (2012). Effects of policy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on drinking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9(2):83-91.
- Kim SS (2011). Customer satisfaction on the service qua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M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23-78, Chungju.
- Kim YJ, Park YM, Yoon HH (2013). The effects of culinary. Food & beverage employees' stress coping style on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9(3):156-172.
- Kim YS (2003). A study on drinking patterns. *Social Welfare Review* 8:103-119.
- Knupfer G (1966). Some methodological problems on the epidemiology of alcoholic beverage usage: Definition of amount of intak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56(2):237-242.
- Lee JU (2015). The effect of new sports on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S thesis, Korea national sports university 3-11, Yongin.
- McNally AM, Palfai TP (2001). Negative emotional expectancies and readiness to change among college student binge drinkers. *Addictive Behavior* 26:721-734.
- Oh HS (2011). Alcohol consumption rates and the pertception of drinking cultures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Wonju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26(2):101-112.
- Park JS (200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 Park SJ (2013). Study about satisfaction of students of beauty specialized high school with the practical skill class. Master's Thesis, Kyunggi University.
- Rue M (2010). Relationship of alcohol drinking and sociocognitive factor on binge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6(1):63-79.
- Vik P, Carrello P, Tate S, Field C (2000). Progression of consequences among heavy drinking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4(2):91-101.
- Vogel-Sprott M (1974). Defining 'light' and 'heavy' social drinking: research implications and hypotheses.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35(4):1388-1392.
- Wechsler H, Lee J, Nelson T, Lee H (2001). Drinking levels, alcohol problems and secondhand effects in substance-free college residences: Results of a national study. *Journal of study Alcohol* 62(1):23-31.
- You CY, Kim HM (2010).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affect and maladaptive coping strateg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1(4):137-168.

2016년 02월 24일 접수

2016년 03월 14일 1차 논문수정

2016년 03월 28일 2차 논문수정

2016년 04월 03일 논문 게재확정